현대소설연구(제81호)
The Journal of Korean Fiction Research
http://doi.org/10.20483/JKFR.2021.03.81.113

염상섭의 1950년대 전시소설에 나타난 '민족문학' 연구*

신 은 경**

요약

염상섭의 문학은 다양한 시대적 격동기에서 탄생했다. 일제강점기, 해방기, 한국전쟁이라는 굵직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도 염상섭은 지속적인 문학 활동을 통해 문학적 세계관을 구축하였다. 염상섭의 전시소설은 그의 50년대 문학에서 별개의 영역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시대에 발표되었던 종군문학과 변별적 지점이 있기 때문이다.

염상섭이 한국전쟁 기간에 발표한 전시소설은 그가 전시에 주장한 '민족문학론'이 바탕이 되고 있다. 그는 전시에 '민족문학론'을 주장하면서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사실주의'를 이야기했다. 이는 종군문학이 리얼리즘을 통해 추구하고자 했던 남한 이념의 강조가 아닌, 전쟁 현실에서 발생한 민족의 삶 자체를 사실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를 내재하고 있다. 그래서 염상섭의 전시소설에는 전쟁이라는 부정적 현실에서 이루어진 민족의 삶을 이념 문제를 희석한 채 반영하고자 하는 서술적 전략이 나타난다. 그의 전시소설에는 이념적 문제에 당면한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근본적 문제의 원인은 전쟁 전부터 존재했던 인간적 욕망, 갈등 혹은 전쟁 직후 생존하기 위한 이기적인 내적 욕망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와 같은 서술적 전략을 통해 염상섭의 전시소설은 종군문학과 본질적 차이를 보이며 시대적 아픔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어: 염상섭, 전시소설, 민족문학, 리얼리즘, 내부냉전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과제번호)(NRF-2019S1A5B5A07110250)

** 고려대학교 교양교육원 강사

목차

1. 한국전쟁과 염상섭 전시소설의 방향
2. 과거의 욕망과 갈등 분출
3. 생존을 위한 이기주의 양상
4. 결론

1. 한국전쟁과 염상섭 전시소설의 방향

염상섭의 문학은 다양한 시대적 격동기에서 탄생했다. 일제강점기, 해방기, 한국전쟁이라는 굵직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도 염상섭은 지속적인 문학 활동을 통해 문학적 세계관을 구축하였다. 본고는 염상섭의 문학 가운데 한국전쟁 즉, 전시에 발표했던 소설을 통해 전쟁 상황에서 구현된 염상섭 문학의 방향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그동안 소홀이 논의되었던 염상섭 전시소설을 재고하고 논의의 다양성을 추구하고자 한다.

염상섭의 전시소설은 이 시기만 따로 분류한 연구보다는 1950년대 문학 범주 혹은 전후문학의 측면에서 논의되었다.[1] 하지만, 염상섭의 전시소설은 그의 50년대 문학에서 별개의 영역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시대에 발표되었던 종군문학과 변별적 지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전쟁 현실에서 나타났던 문학가들의 삶과 그 속에서 파생되었던 전시문학의

1) 현재까지 염상섭의 전시소설만을 연구한 논문은 없으며, 대부분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한 염상섭 소설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전쟁을 배경으로 한 염상섭의 소설연구 과정에서 전시소설이 포함되어 논의되기도 하였다. 오태영은 염상섭의 장편소설을 중심으로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한 『홍염』, 『사선』, 『취우』, 『새울림』, 『지평선』이라는 작품을 살펴보았다. (오태영, 「한국전쟁기 남한사회의 공간 재편과 욕망의 동력화-염상섭의 장편소설을 중심으로」, 『사이』 29권 10호,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20.) 공종구는 한국전쟁 이후에 한국사회에서 전쟁 미망인을 서사의 주체로 한 작품인 『미망인』(1954), 『화관』(1956)에 대해 논의하였다. (공종구, 「염상섭 소설의 전쟁 미망인」, 『현대소설연구』 78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20.)

방향성을 통해서 알 수 있다. 1950년 6월에 발발했던 한국전쟁으로 인해 남한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혼란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사람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사투했고 새로운 가치관과 의식이 생성되면서 남한 문단도 재편되었다. 전쟁 중 남한 문인들의 사망, 실종, 납북 등 문단에 비극적 상황이 발생했고, 국토의 파괴와 제반 시설이 운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인들의 문학 활동은 어려웠다. 그래서 한국 문학사에서 전시문학을 "일시적 공백 상태"[2]로 칭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쟁 직후에만 문인들이 문학 활동을 중단했을 뿐 9·28 서울 수복 후 종군을 통해 작품 발표는 이루어졌다. 전쟁 전부터 활동하였던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의 간부들은 전쟁 직후 전·후방을 향해 종군하였고, 1951년에 종군작가단[3]을 결성했다. 1·4후퇴 후 기성 문인들은 남쪽 피난지서 집결하여 군의 지원을 받아 공군, 육군, 해군 순으로 차례로 조직되었는데, 종군문인들은 군에 소속되어 전시 문인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그들의 문학적 행보는 전시 문단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군대는 종군문인들의 중요한 문학적 장이었는데, 그들은 종군체험을 기관지에 발표하거나, 르포 형식으로 기록하면서 창작 활동을 했기 때문이다.[4]

---

2)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2』, 민음사, 2002, 104면.

3) 종군작가단은 1951년 3월 9일 대구에서 공군종군문인단을 시작으로 5월 26일 대구에서 육군종군작가단, 6월에 부산으로 피난을 온 문인들을 중심으로 해군종군작가단으로 발촉되었다. 마해송을 단장으로 하는 공군종군작가단은 창공구락부를 조직하였으며 여기에서는 조지훈, 최인욱, 최정희, 박두진, 박목월, 황순원, 김동리, 김윤성, 이상로 등이 잡지 『창공』, 『코멘트』에 직접·간접으로 관여하였다. 육군종군작가단은 소설가 최상덕을 위시하여 김팔봉, 김송, 박영준, 최태웅, 정비석, 박인환, 이덕진, 김이석, 등이 군가작사, 강연회 문인 연국, 종군기자 등으로 활약하였으며, 기관지 『전선문학』(1952)을 간행했다. 이선구를 단장으로 하는 해군종군작가단은 현역의 윤백남, 염상섭, 이무영을 비롯하여 박계주, 안수길, 이종환, 박연희 등이 참가하여 『해군』지를 편집하였다. 종군작가단의 활동이 문학적 결실로 나타난 것은 국방부 정훈국에서 낸 『전시 한국문학선』(1955)의 시편과 소설 편 두 권의 선집이라 할 것이다. 김윤식, 「한국문학40년사」, 『한국 현대문학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8, 475-456면 참조.

4) 신은경, 「1950년대 전시소설 연구- 전시의 민족정체성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21, 17면 참조.

해군종군작가단은 가장 마지막으로 조직된 종군작가단으로서 부산항에 모인 문인들이 주축 되었다. 해군종군작가단은 배를 타야 한다는 이유로 육군과 공군보다 활발히 종군활동을 하지 못했지만, 중요한 문학적 이력을 남겨졌다. 그들은『海軍』에 원고를 제공하고『花郎外史』,『海軍短篇集』,『李舜臣』과 같은 해군문고 발간에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하였다. 해군종군작가단은 해군 장교로 복무하던 문인들의 지원을 받았는데 "문단의 중진인 尹白南씨, 廉想涉씨, 李無影씨 등이 해군 정훈감실의 문관으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이다 보니 자연히 단체를 이루게"[5]된 것이었다. 해군종군작가단 형성에 이미 장교로 임관되어 있었던 기성문인들의 역할이 컸다고 볼 수 있다. 이봉래의 증언에 의하면 "安壽吉, 李璇求를 위시하여 朴淵禧, 孔仲仁, 李奉來, 金奎東씨 등 활동적이면서 선취(船醉)를 덜 느낄 젊은이들로"[6] 해군종군작가단이 구성되었다. 염상섭은 해군종군작가단에 소속된 작가는 아니었지만, 해군 장교로서 이무영과 함께 해군종군작가단 조직에 힘쓰고 이 시기 해군종군문학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염상섭의 전시소설[7]은 종군문학과 같은 시기에 발표했을 뿐 문학적 경향은 달랐다. 그의 전시소설에는 종군문학에 나타났던 남한 사상과 반공주의 이념이 희석된 서사적 전략이 나타난다. 이는 염상섭이 전시에 추구했던 민족문학과 이를 통해 구현하고자 했던 사실주의의 방식에서 알 수 있다. 염상섭의 전시 민족문학론은 그가 해방기에 '중도파'의 위치에서 주장하였던 문학적 의식에서 비롯되었다.

해방기는 좌우익의 대립이 나타났고,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해방기 우익문학가들은 종군작가단이 되었다. 그래서 종군문인들의 문학정신은 해

5) 중앙일보사편,「전시하의 문인들」,『민족의 증언』7, 중앙일보사, 1983, 109면.

6) 위의 책, 111면.

7) 염상섭이 전시에 발표했던 단편소설은「解放의 아침」(1951),「탐내는 하꼬방」(1951),「잭나이프」(1951),「純情」(1951),「거품」(1952),「自轉車」(1952),「少年水兵」(1952),「慾」(1952),「새 設計」(1952),「해 지는 보금자리 풍경」(1953)이며, 장편소설은「紅焰」(1952-1953),「취우」(1952-1953)이 있다. 본고는 염상섭의 전시소설 중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방기 우익문학가들의 문학 지향과 연속적 지점에 놓여 있었다. 해방기 우익문학가들은 애국을 강조면서 민족통합을 위한 명목으로 '민족문학론'을 주장했고 해방기 문학의 방향을 제시했다.[8] 이들은 좌파 문인들이 주장했던 계급과 이념 추구를 비판하고 문학의 정치적 참여를 부정했다. 우익문학가들은 민족문학론을 통해 남한 문학이 순수하면서도 휴머니즘을 지향해야 한다고 보았다. 김동리는 "민족문학이면서 세계문학의 지위를 확립하는데 이 땅의 순수문학"[9]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작품이 정치와 이념에서 벗어나 창작자의 개성을 강조하자는 것이었다. 조연현은 이를 "프로리얼리즘"이라는 용어로서 설명하였고, 해방 전부터 이어져 왔던 "부르주아 리얼리즘"과 결별을 선언[10]했다. 이처럼 해방기 우파 문학가들은 '민족문학'을 통해 해방기 문학을 구축하고자 하는 의식을 보였다. 염상섭도 민족문학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해방기 문학의 방향성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우익문학가들의 민족문학론과 차이가 있었다.

염상섭은 1948년 「민족문학이란 용어와 관련하여」라는 글에서 "문학은 어디까지나 자유무해한 입장에 놓여"[11]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족문학'은 투쟁이나 프롤레타리아 문학을 주장하거나 배외적, 국수적, 봉건적인 것을 옹호하는 등 좌우의 분립 경향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염상섭은 민족문학이 추구하는 중간적 입장은 근대 이후 문학의 평가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았는데, 〈카프〉나 〈백조〉파 조차도 이념의 양극단에 있지만 "민족운명의 광명을 찾는 문학정신이라는 공통성을" 띤다고 하였다.[12] 해방기에 염상섭은 민족문학이라는 용어를 통해 좌우익으

8) 조연현, 「문학자의 태도」, 『문화창조』, 1945.
조연현, 「새로운 문학의 방향」, 『예술부락』, 1946.
김동리, 「조선문학의 지표」, 『청년신문』, 1946.
김동리, 「순수문학의 진의」, 『서울신문』, 1945.
9) 김동리, 위의 글.
10) 조연현, 위의 글.
11) 염상섭, 「민족문학이란 용어에 관련하여」, 『호남문화』, 1948.

로 구분된 문학이 아닌, 문학정신 자체를 중요시하며 이념과 사상적 논쟁에서 벗어나고자 했으며, '중도파'라는 노선을 선택했다. 이는 한국전쟁 발발 후에도 그의 문학적 성격을 대변했다.

한국전쟁 직후 남한 문단을 주도했던 종군 문학은 해방기 우익문학가들로 구성되었고, 그들은 해방기에 논의했던 민족문학론을 전시에도 주장했다. 전시의 종군문인들은 전쟁 현실을 리얼리즘의 방식으로 작품에 드러내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문학적 방법론은 해방기에 주장했던 '민족문학' 정신에 연속된 것이었다. 조연현은 "문학은 현실 반영이요, 인생의 재현"이라 했으며[13], 김기완은 "리얼리즘에 입각한 작가의 정확한 현실 파악"이 중요하다고 보았다.[14] 그런데 이들이 주장한 리얼리즘의 방식은 남한의 이념과 정치적 방향 재현까지도 염두 한 것이었기에 종군문학은 이념과 사상을 드러내는 정훈 문학의 성격을 갖추기도 했다. 종군작가단은 전시의 민족문학이 남한의 이념을 사실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통해 구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한국전쟁 당시 해군 장교로 복무했던 염상섭은 종군작가단이 주장했던 민족문학과 다른 견해로 전시의 민족문학론을 정의했다.

염상섭은 1952년 5월 『문예』에 「한국의 현대문학」이라는 글을 썼다. 이 글은 한국전쟁 기간에 염상섭이 유일하게 쓴 문학론이며, 전쟁 전부터 주장했던 민족문학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고 있다. 여기서 염상섭이 주장하는 '민족문학'은 '민족의식', '민족혼'과 관련된다. 염상섭은 '민족문학'을 '자국문학'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는데 이는 "국수주의적 의미보다는 외래문화의 영향 속에 휩쓸리지 않으려는 주체적인 의미가 강한 개념"[15]이라 했다.

12) 김영민, 『한국현대문학비평사』, 소명출판사, 2002, 85면 참조.
13) 조연현, 「한국전쟁과 한국문학-체험의 기록과 경험의 형상화」, 『전선문학』, 1953.5, 참조.
14) 김기완, 「전쟁과 문학」, 『문예』, 1950.12, 참조.
15) 김영민, 위의 책, 85면.

"육이오의 악몽같은 一時의 紛擾쯤은 문제도 아니다. 차라리 민족통일, 민족정신의 강인하고 줄기찬 단결력으로 민족문학은 금후 일층 활발히 신경지를 개척하고 발흥할 機運에 際會하였다."(중략)

"政治的으로 中日露 三者間에 끼워서 부대끼며 살아온 우리지마는, 사람은 부대끼면 부대낄수록 차돌마치처럼 달아서 怜悧해지고 철석같은 제 정신이 연마되는 법이니 한국사람들의 民族魂은 一世紀에 가까운 倭人政治 밑에서도 더한층 똑똑히 살아났고 그 酷甚하던 語文抹殺定策속에서도 제 문학을 세우고 살려온 과거의 피비린내 나는 血鬪를 알아 주어야할 것이다. 한국의 문인이란 路傍의 돌맹이처럼 뭇밭길에 채우면 천잴르 받고 압박을 받으며 실생활의 궁핍은 乞客이나 다름없는 처지이나, 그러면서도 문학을 천직으로 여기고 거기 殉道者的 意氣와 淸高한 氣槪로 일생을 바쳐온 것이다."(중략)[16]

염상섭은 '민족문학'의 조건은 "민족적 생활"이 있어야 하며, "우리 말을 사용"이라 했다. 그는 일제강점기에는 민족적 생활이 없었고, "왜인"의 말을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민족문학이 형성될 수 없었다고 보았다. 염상섭이 생각하는 민족문학은 독자적인 민족성이 드러날 때 가능하다고 여겼다. 즉, 민족문학은 좌우의 이념적 대립 문제보다는 민족적 생활, 말과 글을 주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염상섭이 해방기에 이념적 대립보다는 문학정신 자체를 중요시했던 '민족문학론'과 연결되는 지점이었다. 그는 남한 문학만의 독자성 추구를 주장하였고, 이는 전쟁 중에도 외래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여겼다. 그래서 염상섭은 민족통일, 민족정신과 같은 단결력으로 민족 문학의 신경지 개척을 주장했다. 그가 이것이 가능하다고 여긴 것은 한국의 민족성이 과거에 중국과 일본의 세력 다툼 속에서도 살아났으며, 그 사이에서 부대끼면서 "차돌"과 같아졌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즉,

16) 염상섭, 「한국의 현대문학」, 『문예』, 1952.2, 10-12면.

전쟁 상황 속에서도 민족성, 민족정신을 찾아 유지하는 것만이 민족문학을 형성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인식했다.

염상섭이 주장하는 전시의 민족성은 이념을 초월하여, 민족통일을 꿈꾸며, 타국에 좌우되지 않는 순수한 경지였다. 그는 민족의 단결, 민족성 구현을 하나의 의무감으로 인식했다. 그래서 염상섭이 한국전쟁 기간에 발표한 전시소설도 그가 전시에 주장한 '민족문학론'이 반영되어 있다. 그는 전시소설은 이념의 문제만이 아닌, 전쟁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염상섭이 민족문학론을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사실주의'를 주장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하지만 염상섭이 전시에 주장했던 사실주의는 종군작가단이 논의했던 '리얼리즘'과는 성격이 달랐다.

> 대체로 여상한 추이로 발달되어 오는 동안에 자연주의 문학이라기보다도 널리 사실주의 문학이 확보한 기반이 쌓게 되었고, 민족문학으로서의 독자의 광채를 방하게 되었다.[17]

염상섭은 한국문학의 발달에 있어서 사실주의가 중요한 문학적 기반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여기서 '사실주의적 문학'은 염상섭이 주장하는 '민족문학'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방법론으로 제시된다. 이는 종군문학이 리얼리즘을 통해 추구하고자 했던 남한의 이념 강조가 아닌, 전쟁 현실에서 발생한 민족의 삶 자체를 사실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를 내재하고 있다. 염상섭은 이를 통해서 전시문학이 "세계문학"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으며, 민족문학의 성격을 공고히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염상섭의 전시소설에는 전쟁이라는 부정적 현실에서 이루어진 민족의 삶을 이념 문제를 희석한 채 반영하고자 하는 서술적 전략을 보인다. 염상

17) 염상섭, 앞의 책, 9면.

섭이 전시소설에 직접적으로 이념의 문제를 배제하지 않고, 우회적인 방식으로 이념 희석 전략을 추구한 이유는 해방기에 중간파였던 그의 신분적 이력이 한국전쟁 때 생존의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생존에 대한 염상섭의 의지는 그가 전쟁 직후 해군에 입대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염상섭은 전시에 해군 장교로 복무하면서 자신의 이념을 직접적으로 드러냈고, 이와 같은 행보는 그의 전시소설도 종군문학처럼 남한의 이념성을 드러내야 한다는 점이 전제되는 부분이기도 했다. 그래서 염상섭의 전시소설에는 이념적 갈등 관계에 놓인 인물들이 등장한다. 하지만, 염상섭은 여전히 해방기에 추구했던 중도파의 입장을 내면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전시소설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념의 문제는 작품의 중심적 의미 지점을 차지하지 못한다. 오히려 그의 전시소설은 이념보다는 전쟁 현실을 살아가는 인간의 내면 욕망과 욕구를 중요한 문제로 제시한다. 등장인물 사이에서 벌어지는 근본적 문제의 원인은 전쟁 전부터 존재했던 인간적 욕망, 갈등 혹은 전쟁 직후 생존하기 위한 이기적인 내적 욕망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서술적 전략을 통해 염상섭의 전시소설은 종군문학과 본질적 차이를 보인다. 즉, 염상섭은 남한의 이념을 드러내기 위한 사실주의가 아닌, 전시 민족의 삶에 집중하고 그것을 나타내는 사실주의 방법론을 사용하여 자신이 주장했던 전시의 민족문학을 구현했다.

2. 과거의 욕망과 갈등 분출

염상섭은 6.25 전쟁이 발발하자 1950년 11월 30일 해군에 입대한다. 9월 28일 서울 수복 직후였으며, 그의 나이 54세인 해였다. 염상섭은 1954년 5월 제대까지 해군본부 정훈감실의 편집과장, 지도과장을 거쳐 해군본

부 정훈실장이 되어 중령으로 진급하는 등 한국전쟁이 발발 직후 해군으로서 다양한 이력을 남겼다. 특히, 염상섭은 해군종군작가단 형성에 일조하였고, 이들과 문학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문학적 이정표를 만들었다. 그는 "문학을 한다거나 신문쟁이라거나 하는 소위 자유주의적 입장에 트러박혔던 위인이 단적으로 솔직히 나서자면 역시 이길 밖에는 없"다고 여겼다.[18] 염상섭이 해군에서 문학 활동을 한 것은 기성 문인으로서 문학을 이어 나가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의 소산이었다. 게다가 한국전쟁 직후 문학가는 스스로 이념을 증명해야 했기에 염상섭의 해군 입대는 생존을 위한 방법이기도 했다.

1950년 9월 28일 서울 수복 후 부역자에 대한 대대적인 처벌이 진행되었고, 문학가들도 자신의 이념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했다. 기성 문인들 대부분 종군하면서 자신의 이념을 증명했고, 그들의 문학은 정훈적 성격을 띠며 남한의 이념을 담아냈다. 염상섭도 해군 장교로서 군에 소속되어 문학 활동을 하였지만, 그의 전시문학은 적극적으로 남한의 이념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그는 해방기에 중간파[19]를 자청하면서 좌우의 어떠한 이념에도 치우지 않으려는 자신의 문학적 신념을 드러냈었던 기성 문인이었다. 그래서 그는 전시에도, 중간파로서의 입장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고, 전시소설에 이념을 희석할 수 있는 서술적 전략을 취했다. 그의 전시소설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념적 갈등은 전쟁 전부터 존재했던 인간적 욕망과 갈등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이념의 문제는 부차적인 성격을 띤다.

염상섭이 1951년 『신생공론』에 발표한 「탐내는 하꼬방」은 좌익세력이 서울을 점거하고 인천상륙작전을 앞둔 시점이 배경이다. 소설에 등장하는 박일성 가족은 북한군이 서울을 침범하자 "빨갱이" 완장을 차고 좌익

18) 신영덕, 「전쟁기 염상섭 해군체험」, 『韓國學報』, 일지사, 1992, 37-41면 참조.
19) 김준현, 「1950년대 문예지와 염상섭의 단편소설」, 『반교어문연구』. 반교어문학회, 2015, 9면.

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을 감시하고, 남성들을 "의용병"으로 만들어 북으로 가게 하는 등 부역자로 역할 했다. 마을 사람들은 좌익을 등에 업고 권력을 손에 넣은 박일성 가족의 횡포에 반항하지 못하고 그의 요구를 수용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갔다. 이 소설에는 박일성 가족을 통해서 공산주의자보다 공산주의자로 변절한 자가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이는 한국전쟁 때 북한이 남한을 침범하면서 펼쳤던 정책과도 연관된 부분이었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하자, 남한에 있는 우익집단을 탄압하였다. 그들은 남한사회에 대한 권력 재배치를 단행하였고 이를 잘 수행하기 위한 정책 과정에서 소위 우익에서 좌익으로 변절한 부역자들을 활용했다. 1950년 7월 중순에 북한군은 각지에 인민위원회를 만들었고, 여기에는 "민주청년동맹, 여성 동맹, 직업동맹, 문화단체 총동맹" 등이 조직되었다.[20] 이들은 북한 사람들이 아니라 남한 사람들로 구성되었는데, 남한의 정세를 누구보다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남한 사람 중에는 당장 화를 피하고자 인민위원회에 소속되거나 좌익세력을 지지한 자들도 더러 있었다. 공산주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부역자로 처단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좌익을 선택한 부역자들은 마을을 감시하고 고발하는 일을 맡게 되면서 사상에 대한 검열을 강화하는 중대한 역할을 했다.

전시에는 우익에서 좌익으로 변절한 자들이 마을 곳곳에 있었기에 사람들은 이웃을 경계하고 불신해야만 했다.[21] 좌익에 부역한 자들은 "붉은

20) 서용선 외, 『한국전쟁연구- 정령정책, 노무운용 동원』, 국방군사연구소, 1995, 참조.

21) 장덕조는 "시민들은 공포에 떨었다. 길을 걸어도 꼭 정면만 바라보았지 옆을 돌아보거나 뒤를 돌아보거나 하는 이를 맞나 인사만 교환해도 무서운 눈초리로 주시했다. 물론 국제정세 같은 것을 논한다거나 알려고 한다거나 해서는 안된다. 이웃집 일에 참섭을 해서도 안되었다. 어느 놈이 내 생명을 노리는 놈인지 어는 집이 내집의 감시원인지 서로 알지 못하면서 그저 경계해야했다. 모두 신경쇠약증에 걸린것만 같았다.(중략) 이것이 소위 공산주의체제였다. 공산주의자들은 이렇게 그들의 손톱을 갈아 동족상잔의 요구로했든 것이다." 장덕조, 「내

완장을 찬"인물들로 동네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22] 그들은 마을 사람들의 삶을 전쟁 전부터 전쟁 직후까지도 모두 알고 있었기에 사람들은 북한군보다 이들을 더 지독한 감시자로 인식하기도 하였다. 「탐내는 하꼬방」에서 박일성 가족도 좌익 부역자로서 이웃을 감시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한다. 필준이 의용병에 끌려가서 도망쳐 나왔을 때도 박일성 부인은 지속해서 감시했으며, 그가 집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 공을 세우기도 했다. 이웃을 향한 박일성 부부의 잔인함은 좌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발생하게 한다. 하지만 소설에는 박일성 가족의 좌익 활동이 전쟁 전부터 존재했던 물질적 욕망 충족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이 서술되면서 이념적 인식이 희석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이는 필준 가족이 운영하고 있던 '하꼬방'을 박일성 가족이 빼앗으려는 모습에서 그려진다.

> 이 여자도 남편에 못지않게 빨갱인 것을 이번에야 알겠지마는 그래도 남편이 붙들려나가거나 소개 나가라고 등살을 대는 것이 무서워서 틈틈이 하꼬방으로 이 내외를 모셔다가 대접도 하고 제 친구를 끌고 와서 마냥 먹은 외상을 삼만 원어치나 주고 간 것이 분해 못 견디겠다.[23]

박일성은 남편과 다시 헤어지고 홀로 막막한 현실에 놓인 필준댁에게 하꼬방을 헐값에 넘기라고 종용했다. 박일성은 "쌀배급 광목배급이니 소고기가 공짜로 들어왔느니 하고 떵떵거리고 살"[24]고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전쟁 전부터 필준가족이 운영하는 하꼬방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필준댁이 "공산주의사회에서두 돈이 필요하든가요?"라며 박

가 본 공산주의」, 『적화삼삭구인집』, 국제보도연맹, 1951, 69-74면.

22) 김동춘, 『전쟁과 사회』, 돌베개, 2000, 187면 참조.

23) 염상섭, 「탐내는 하꼬방」, 『염상섭 단편전집 중기단편: 1945-1953』, 민음사, 1987, 260면. (1951년 『신생공론』에 발표된 작품이다.)

24) 위의 책, 262면.

일성 가족의 행동을 의아해했지만 이에 박일성댁은 "여맹 일은 여맹 일이요. 벌이는 벌이지"[25]면서 공산주의 사상과는 다른 내적 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여기서 박일성 가족의 좌익 가담은 물질적 욕망 충족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부역자들의 개인적 욕망은 공산주의 이념적 실천보다 앞서 있다는 점에서 이념은 부차적 문제로 존재한다.

염상섭 전시소설에서 부역자가 잔인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근본적 이유는 전쟁 전부터 존재했던 물리적, 비물리적 결핍과도 관련된다. 이는 「자전차」[26]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소설에서 나타나는 이념적 대립은 혈연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병훈과 그의 아들 상기, 삼룡과 그의 아들 차득은 같은 집안 출신이었지만 전쟁 전부터 불편한 사이였다. 삼룡 부자는 병훈 부자를 미워했는데 그 이유는 전쟁 전 마을에서 이들의 입지가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병훈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고, 그의 아들 상기는 구장으로부터 신임을 받아 마을 지도부장으로 활동하였다. 반면 삼룡 부자는 마을에서 인정받지 못했고, 중요한 일을 수행하지도 못하였다. 마을에서 입지적 차이로 인해 전쟁 전부터 삼룡 부자는 병훈 부자로부터 결핍을 느꼈고, 이는 전쟁 직후 공산주의자가 되어 마을 사람들과 병훈 부자를 괴롭히는 것으로 표출된다. 그래서 이 소설에서 구현되는 이념의 대결은 궁극적으로 전쟁 전부터 존재한 종족집단의 경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제시된다. 실제로 한국전쟁 시기에 한 마을 안에서 우파와 좌파의 갈등이 있었고, 전세에 따라서 서로에 대한 보복이 자행되었다. 한국전쟁 시기에 마을 안에서 동족인 100여 명 이상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되기도 하였다. 이는 집안 내부의 갈등이 해방 후 좌우익의 갈등으로 나타났고, 한국전쟁 이후에는 살육의 형태로 극단화됐다.[27]

---

25) 위의 책, 262면.

26) 「자전차」는 1952년 『협동』에 발표된 작품이다. 1953년에는 『해양소설집』에 「가위에 눌린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기도 하였다.

27) 박찬승, 「종족마을 간의 신분갈등과 한국전쟁 : 부여군 두 마을의 사례」, 『사회와 역사』, 한

> 어제 소위 반동분자라는 청년들을 차례차례 끌어다가는 두드려패고 법석을 하는 한편에 이부락안에서 땅마지기나하고 밥술이나 먹는다는 집은 모조리 뒤져서 쌀가마니개나 여축이 모탕 들어갔는데 그중에서도 피해가 제일심한데가 구장집과 병훈이집이었다.[28]

괴뢰군이 마을을 장악하자 집안 내부에 잠재되어 있던 갈등이 드러났고, 삼룡 부자는 인민지도부장이라는 권력을 앞세워 병훈의 가족을 괴롭혔다. 삼룡 부자의 폭력성은 공산주의 선동보다는 과거에 품고 있었던 결핍이 근본적 원인이었다. 과거에 차득은 상기에게 경쟁의식이 있었고, 신분적 격차를 느끼기도 했다. 차득은 서울에서 "인쇄공"으로서 일을 하며, 노동자 계층에서 머물러 있었지만, 상기는 서울에서 "사년제 농업학교"를 졸업하고 "군청 농업계장"으로 일한 지식인이었다. 그리고 차득은 상기가 구장 영감의 딸 완희와 혼담이 오갔다는 점에도 분노를 느끼기도 했다. 차득이 병훈 가족과 마을 주민들에게 가하는 폭력은 전쟁 직후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전쟁 전부터 내재한 폭력성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 소설에서 자주 노출된다. 즉, 소설에서 이념은 개인의 갈등과 분노를 표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전쟁 전부터 존재했던 인간 내면의 갈등은 전쟁으로 인해 잔인한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염상섭이 해군 기관지인 『軍港』에 발표된, 「少年水兵」[29]에는 전쟁고아가 된 소년이 등장하는데, 소년이 고아가 된 것은 전쟁보다는 전쟁 전부

국사회사학회, 2006, 참조.

28) 염상섭, 「자전차」, 『협동』, 1952.9, 136면.

29) 「少年水兵」은 1952년 9월에서 11월까지 『軍港』에 발표된 작품이고, 「그리운 남의 정」으로 개작된다. 현재 이 작품은 해군기관지에 실린 작품이고 염상섭의 다른 전시문학에 비해 많이 알려지지 않은 작품이다. 본고의 논의를 위해서 신영덕의 『한국전쟁기 종군작가 연구』에 제시된 이 소설을 인용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신영덕, 『한국전쟁기 종군작가 연구』, 국학자료원, 2015, 202-203면 참조.

터 알고 지내왔던 사람의 배신이 근본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창길이라는 소년은 전쟁이 발발하기 전 음악가 부부의 아들로서 부유하게 살아가다가 부모가 모두 납북되어 전쟁고아가 된다. 전쟁 전부터 창길이의 집안일을 하던 정례 모친, 정례와 함께 부산으로 피난을 가게 되는데, 정례 모친은 창길을 해군 부대에서 생활하게 만들어 버린다. 소설에는 창길은 자신의 집 재산을 정례 모친이 가로챈 것으로 인식했고, 남이라는 존재에 대해 두려움과 환멸을 느낀다. 소년이 전쟁고아가 되고, 피난지서 어린 나이에 해군 부대에서 살아가는 암담한 삶을 통해 전쟁 전부터 존재했던 인간의 물질적 욕망이 전쟁 현실을 더욱 잔인하게 만든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리고 전시에는 이웃이 적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제시되면서 소설에는 이념의 문제보다 인간 내부의 갈등 문제를 전면화하고 있다.

염상섭은 전쟁이 잠재하고 있던 인간의 본질적 감정이 드러나는 시기라는 점을 그의 전시소설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물론 소설에서 등장인물간 대립으로 인해 표면적으로 반공 의식을 드러나고 있지만, 염상섭은 이것보다는 전시의 본질적 삶의 문제를 통해 피폐한 인간의 내면 의식을 드러냈다.

3. 생존을 위한 이기주의 양상

염상섭의 전시소설에는 전쟁 전부터 존재했던 인물들의 갈등뿐만 아니라, 전쟁 직후 변해버린 인간의 내면도 드러난다. 전쟁은 인간의 감정을 피폐하게 만들었고, 사람들의 관계도 피상적이고 이기주의적으로 변모하게 했다. 염상섭의 전시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기주의 양상은 좌익과 우익의 이념적 대립에서 발생하지만, 전쟁 현실을 살아가야 하는 인간의 생존 욕망이 근본적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염상섭이 한국전쟁 직후 발표했던 「해방의 아침」[30]에 드러나는 갈등은 가족 집단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표면적으로 이념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북한이 서울을 점령했을 때 남한 사람들은 이념을 증명하고 선택해야 했다. 그러나 전세가 바뀜에 따라 사람들은 이념을 바꾸기도 했는데, 「해방의 아침」에는 부역자의 위치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전세에 따라서 바뀌는 '상대적 부역'[31]양상이 나타난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원숙 모녀는 북한군이 서울을 수복했을 당시 인민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적극적으로 좌익에 가담한 인물들이었다. 서울에 북한군이 점령하였기 때문에 원숙 모녀처럼 좌익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들은 남한의 부역자로 낙인되었고, 좌익세력으로부터 괴롭힘도 당하게 된다. 그런데 서울이 국군에 의해 수복되면서 좌익에 가담했던 이들이 부역자의 위치를 넘겨받게 되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사람들 간 갈등이 고조된다. 전세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 부역자의 위치에 의해 이념적 선택이 인간 생존의 문제와 관련된다는 점도 드러난다. 이는 정세에 따라 행동하는 정숙 모녀와 인임을 통해서 알 수 있다.

> 『얘. 원숙이 집이 제일 먼저 기를 내달지않았던』『그렇더군요』『응 원숙이네가』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 세수를 하던모친도 말참견을 하여 깃대에 기를매고섰는 딸을 건너다보며 웃었다.[32]

소설에는 서울이 수복되자 사람들은 다시 자신들의 이념을 증명해야 했는데, 태극기를 가장 먼저 단 사람은 좌익에 가담했던 원숙 모녀라는

30) 이 소설의 도입 부분은 9·28 서울 수복을 시간적 배경으로 하지만 전쟁 직후의 시점도 나타나면서 전시 남한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이 소설은 염상섭이 전시에 발표한 첫 소설이면서 『신천지』(1951) 전시판의 창작(創作) 분야에 유일에 수록된 작품이기에 기성 문인으로서 전시문학에 대한 그의 문학적 의식이 담겨 있다.

31) 신은경, 앞의 논문, 129면.

32) 염상섭, 「해방의 아침」, 『신천지』, 1952, 100면.

점에서 이념의 허상이 드러난다. 그리고 이 소설에서 생존에 대한 욕망은 가족이기주의의 근본적 원인으로 작용한다. 인임의 부모는 "빨갱이 혐의"을 받고 치안대에 붙잡혀 가게 되었고, 인임이는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원숙이 모녀가 인민 위원장이었다는 사실을 밝힌다. 이는 남한의 이념 지향보다는 가족을 살리기 위한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것이었다. 타인을 고발함으로써 가족과 자신이 생존하고자 하는 욕망은 냉전 상황이 지속되면서 발생하는 '내부냉전(kalter Bürgerkrieg)'[33]과 연관된 부분이었다.

내부냉전은 사람들이 이웃을 감시하거나 고발하면서 자신의 생존을 지켜나가는 상황으로 외부적으로 발생한 전쟁의 냉전 상황이 가족과 개인의 내부로 침투한 것을 말한다. 이는 마치 외부적 전쟁 상황이 이웃과 가족 집단의 전쟁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내부냉전은 생존을 위한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인데, 표면적으로는 폭력에 대한 복수심의 형태로 드러나기도 한다. 그래서 정숙이 모녀가 인민위원장으로 활동하였던 사실을 밝힌 인임의 태도는 이념의 문제보다는 생존과 결부되어 있다. 염상섭 전시소설에서 나타나는 인물들의 생존 욕망은 피난민들을 통해서 선명히 드러난다. 전쟁을 피해 피난을 내려간 사람들은 생존했다는 기쁨도 잠시, 새로운 공간에서 적응하며 살아야 한다는 막중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 설사 서울에서 가졌던 나의 生活條件이 이곳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 할찌라도 그것은 서울에서 내가 가졌던 生活條件과는 全혀 다른 意味를 가지는 것이다. 가령 내가 이곳에서 나의 마음에 드는 집을 가질수 있었다고 假定하자 그러한 境遇에 있어서도 그집이 나의 피가 交流된 나 自身의 한 分身이 되기에는 많은 다른 要素가 要求되는 것이다. 그것은 그 집이 나에게 同化되고, 내가 그집에 同化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냥 살

33) Bernd Stoever, 최승환 옮김, 『냉전이란 무엇인가 : 극단의 시대 1945-1991』, 역사와 비평사, 2008, 119면.

> 림살기에 便利하고 그집에서 살기에 氣分이 맞는다는 것만으로서는 不足한 것이다. (중략) 幸福할수도 없는 나와같은 避難民 도대체 어떻게 이 어슬프고 不安定한 心情을 이끌고 살아가야 할것인가?[34]

피난민들은 피난지서 궁핍하고 암담한 현실을 경험했다. 조연현은 서울에서 부산으로 피난을 내려온 심정을 1951년 『피난민은 서글프다』에서 밝혔다. 그는 이 글에서 피난지서 생활한다고 할지라도 서울에서의 삶과 달랐기에 행복할 수 없었다고 했다. 피난지 집이 "살림사리에 편리하고 살기에 기분이 맞는" 사실만으로 피난지의 삶이 만족스럽게 전개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피난지서 자신은 행복할 수 없다고 여겼다. 그리고 불안정한 심정을 이끌고 살아가야 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한탄했다.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피난지의 삶에 피난민들은 적응하기 어려웠다. 피난민들은 자신의 가족들이 피난지서 생존할 수 있는 삶을 선택해야 했고. 이는 이기주의의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는 염상섭 전시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관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염상섭이 1952년에 발표한 「욕(慾)」이라는 작품에는 혈육과 이웃을 향한 피난민들의 이기주의적 양상이 나타난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피난민 가족은 단칸방에서 5명이 살아가고 있고, 집안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인물은 가장인 '철이'뿐이었다. 철이는 부두에 나가 일용직을 하였는데, 이마저도 다섯 식구를 먹여 살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처지였다. 하지만 소설에는 전시에도 제사를 지내려는 노모의 태도에 의해 궁핍한 생활 속에서도 전통을 지키려는 인간의 이중성이 그려진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사 음식을 둘러싼 인간의 이기적인 감정이 드러나면서 피난지 현실의 피폐함이 나타난다.

34) 조연현, 「해바라기의 생명- 1. 피난민의 길」, 『피난민은 서글프다』, 1951, 53면.

"그앤 누군데 무어 차린 게 있다구 군식구를 왜 줄줄이 달구 다니니"[35]

철상을 하면서 아내는 이것부터 걱정이 되는 듯이 묻는다. "그만 둬, 시계를 팔아가면서 이판에 술 한잔 고기 한 점인들 그깐놈 무엇하러 멕일구" 잘못이라면 누이가 잘못이지 이 사람야 누이를 꼬여낸 것도 아니오[36]

피난지의 어려운 형편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비현실적인 일이었지만, 철이의 모친은 제사를 핑계로 하루 동안은 풍족히 먹을 수 있었기에 좋아했다. 음식들은 서울에서 피난을 내려올 때 마지막 밑천으로 가져온 철이의 "팔뚝시계"를 팔아서 준비한 것이었다. 음식을 향한 노모의 집착은 멈춰지지 않는데, 이는 피난 생활의 궁핍함에서 인간의 원초적 욕망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노모는 혈육과 이웃에 대한 불신과 부정의 태도를 보이면서 극단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욕망을 표출했다. 어머니는 쌀과 고기가 집에 차려져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면서도 "이 귀한 쌀에 고기 한 근 생선 한 마리를 놀구 식구만 꼬이면 어쩌자구"하며 걱정했고, 의붓 손녀와 함께 집으로 온 딸을 냉대했다. 혈육이라도 먹을 것을 뺏기고 싶지 않은 노모의 욕망은 생존에 대한 인간의 집착이 참혹하고 안타까운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이 소설에는 타인에 대한 적대심은 이념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 생존 욕망에서 비롯되기에 전시의 암담한 현실이 드러난다. 그리고 염상섭의 전시소설에는 생존을 위한 원초적 욕망으로 인해 사랑까지도 피상적인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제시된다.

염상섭이 휴전쯤 발표한 「해지는 보금자리 풍경」에는 피난민으로 살아가는 여성의 암담한 현실이 나타난다. 정원이라는 여성은 부산 피난지서

35) 염상섭, 「욕(慾)」, 『염상섭 단편전집 중기단편: 1945-1953』, 민음사, 1987, 276면.
36) 위의 책, 281면.

언니와 함께 피난살이를 하며, 남성들에게 물질적으로 원조받아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다.

> 「그래, 외투는 살 돈은 가졌어? 아깟 게 맘에 들건 가는 길에 사라구」 하구 은근성스럽게 또 한 번 재쳤다. 말이 난 김이니 아무래도 사두고 싶었다. 정으로가 아니라 우선 먹일 것을 먹여 놓아야 말이 쉽게 통하기 때문이다. 부부간에도 그렇기야 하지마는 역시 〈거래〉이었다.[37]

이 소설에서 여성이 피난지서 겪는 물질적 문제는 '외투'라는 구체적인 상징물을 통해서 나타난다. 외투에 대한 정원의 욕망은 단순히 사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추운 겨울을 지내기 위한 생존과 관련된다. 그리고 외투를 얻기 위해서 취하는 전남편을 향한 사랑의 감정은 피상적으로 나타난다. 이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행복을 단언하거나 보장된 사랑을 할 수 없다는 원초적인 문제와도 결부된다. 키르케고르는 "인간이 자신이 죽기 전까지 자신의 행복 여부를 단언할 수 없"[38]다며, 행복이 지니는 허상은 결혼과 약혼이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39]는 점에 있다 했다. 그러기에 인간은 전쟁이라는 극단적 현실에서 이러한 감정이 더욱 온전히 실현하기란 쉽지 않았다. 에히리 프롬은 사랑이라는 감정은 타인보다는 자기애로 인해 발생한다고 하였는데, 실패한 자신의 사랑에 대한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사랑은 한계적인 감정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했다.[40] 「욕(慾)」에 등장하는

37) 염상섭, 『염상섭 단편전집 중기단편: 1945-1953』, 민음사, 1987, 305-306면. (1953년 7월에 발표된 작품임.)

38) Soren Aabye Kierkegaard, 『사랑의 역사』, 임춘갑 역, 종로서적, 1982, 195면.

39) Soren Aabye Kierkegaard, 『유혹자의 일기』, 임춘갑 역, 종로서적, 1980, 175면.

40) 프롬은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과 배려의 결여-이것은 그의 생산성의 결여에 대한 한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를 공허하게 만들고 좌절시킨다. 그는 필연적으로 불행하며 생활에서 만족을 얻기 위해 초조해하지만 스스로 이 만족을 달성을 가로막고 있다. 그는 지나칠 정도로 자기 자신을 돌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진정한 자아를 돌보는 데 실패한 것을 은폐하고 보상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이며, 이러한 노력은 실패로 끝난다. 프로이트는 이기적인

정원이 여러 남성에게 기대하는 사랑은 자기 자신의 결핍에서 유발되기에 피상적이며 한계적 감정으로 드러난다.

정원이 남성들에게 물질적인 것에 기대고 있는 것은 피난지서 생존해야 한다는 자기애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의 이혼 경험과 전시라는 암담한 현실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못했다. 그래서 정원은 피상적 형태의 애정을 남성들에게 드러내는데, 이는 전시 현실에서 무기력하게 사는 자기 모멸의 감정과 관련된다. 그래서 정원은 여러 남성에게 의탁한 삶을 살아가면서 불안과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무미건조한 의식만을 보인다. 이는 정원이 피난지서 경제적으로 의탁했던 만영에게 생존을 위해 거짓된 사랑의 태도를 보이는 부분에서 알 수 있다.

> 허리춤에서 쑥 빼내는 것이 권총인가 하고 순원이가 깜짝 놀라 가로막고 서려니, 붕대로 칭칭 감은 일곱 가량의 칼이다. 칭칭 감은 것을 쭉 뽑아서 싯퍼런 것을 번쩍 들고 달겨 들려는 기세에 순원은 주춤 물러섰다. 그러나 정원은 눈 하나 깜짝 안하고 생글생글 웃고만 앉았다가 (중략) 옥신각신하는 꼴이 보기 싫고 듣기 싫어서 순원인 어린 것을 데리고 나가야 갈 데가 없어 목욕에를 갔다가 와 보니, 만영이에게 저녁을 먹이느라고 우동을 시켜다 놓고, 둘이 의좋게 술상을 벌리고 앉았다.[41]

사람은 자신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철수시켜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것과 같음으로 자아도취적이라고 주장한다. 이기적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또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도 못한다."고 하였다. Eric Fromm, 『사랑의 기술』, 문예출판사, 2019, 93면. 자기애는 "나르시시즘"의 형태로 구현되기도 하는데, 에히리 프롬은 이러한 자기애는 자신에 대한 엄청난 사랑보다는 진정한 자아를 돌본 것은 아니라 했다. 자기애는 자신을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의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아도취는 진정으로 자신을 오롯이 사랑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인간의 자기애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조차 거짓된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사랑도 그 진실성을 획득하긴 어렵다. 프로이트는 "우리는 모근 사람들에 근원적으로 나르시시즘의 성향이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그 나르시시즘이 대상 선택에 있어서 지배적인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Sigmund Freud, 『정신분석학의 근본개념』, 열린책들, 2004, 64면.

만영은 정원이 전남편과 만난 사실을 분노하여 폭력적인 방식으로 정원을 위협했다. 그러나 이러한 만영의 행동에 정원은 반항하지 않고, 오히려 순응하는 무감각한 태도를 보인다. 이는 생존을 위한 체념적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즉, 만영에게 향하는 정원의 사랑은 타자를 향한 이타적 사랑이 아닌, 생존을 위한 일종의 '거래'의 형태로서 나타난다. 염상섭의 전시소설에 나타나는 피상적인 사랑의 실체는 전쟁을 기점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는 사랑을 인식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거품」은 염상섭이 1952년 3월 『신천지』 전시판에 발표한 작품이다. 이 소설은 부산 피난민의 실태와 전쟁 직후 변화된 남성의 심리적 상황이 나타난다. 종구라는 남성은 아내와 딸과 헤어진 상태에서 부산으로 피난을 내려왔다. 그는 피난지서 전쟁 전에 알고 지냈던 김혜랑이라는 여성을 만나게 되는데 그녀는 과거에 S학교의 영어 선생님일 때 종우와 애정적 관계에 놓여 있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물질적 이유로 인해 20살 많은 남성의 재취로 결혼하다 버림받는 비극적 경험을 하게 된다. 여기에서 암담한 처지에 내몰린 여성을 바라보는 남성의 시선에는 연민이 아닌 냉소라는 점에서 전쟁 중 사랑은 피상적으로 진행된다. 전시의 현실에서 사랑은 기대할 수 없는 인간의 감정으로 볼 수 있는데, 종교적 성찰에 의한 사랑은 현실의 불행을 극복하기 위한 실존적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인간의 사랑은 행복을 단언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이다.[42] 사랑의 불가능성은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삶까지도 암울하게 만들고 인간의 내면까지도 피폐하게 변모하게 했다. 이는 소설에서 삶의 풍파로 외모가 변한 여성을 대하는 남성의 경멸적인 태도에서 알 수 있다.

41) 염상섭, 앞의 책, 313면.

42) 키르케고르는 인간은 현실에 대한 부정성 암울함으로 실존을 하는데, 인간의 절망과 방황은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고, 또한 인간인 치유할 수 있는 것으로도 보았다. 이는 종교적인 결합을 통해 가능하다고 여겼다. "이 병에서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지극한 축복이다." Søren Aabye Kierkegaard, 『죽음에 이르는 병』, 김일용 옮김, 계명대학교 출판부, 2006, 참고.

> 두 볼이 쏙 들어간 밑의 턱이 쪽 빨리고 눈두덩이 움푹패인 것 보아서는 힘없이 처진 눈거풀속에서 생체를 잃은 동자가 불시의 흥분에 공연히 대룩거리는 양이 퍽 히스테리증이 있을 것 같다. 언제적 외투인지 후주군히 더럽고 풀이 빠진 회색 외투만이 젊었던 한때를 일깨는 듯이 얼굴과는 걸맞지 않아 보였다.[43]

> 여자의 결혼생활이란 자식만 낳라는 것인지, 왼놈의자식은 칭칭치 나서 길르느라고, 빈 쭉정이만 남은 몸둥아리와. 이혼후로 심화에 푹푹 썩은얼굴이. 더구나 六·二五를 겪거나서는 아주 딴 사람이 된 자기신세가 가엾고 부끄러워서, 어서어서 이남자의 눈앞에서 자취를 감추고 싶었다.[44]

이십 년 만에 종구과 혜랑이 피난지서 만나게 되었는데, 과거의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변한 혜랑은 외모는 종구의 내면을 불편하게 했다. 첫 번째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종구는 외모뿐만 아니라 차림새까지 "후주군" 한 혜랑의 모습을 보며, 연민보다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볼품없이 변한 혜랑의 외모는 종구를 냉소적 인간으로 만드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상황을 혜랑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비극적 현실이 드러난다. 혜랑은 전 남편과 헤어졌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六·二五를 겪거나서" 변하게 된 자신의 외모에 자신감을 상실한 상태였고, 종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현실을 초라하게 느꼈다. 이 소설에서 나타나는 남성과 여성의 감정은 전쟁 이후 변화된 것이기 때문은 전쟁은 사랑의 감정을 온전하게 실현하지 못하게 만드는 한계적 시대라는 점이 제시된다. 그리고 변해버린 사랑은 이기주의적 의식으로 표출되면서 전시의 참담한 현실이 드러난다.

---

43) 염상섭, 「거품」, 『신천지』, 1952, 142면.
44) 위의 책, 147면.

종구는 변화한 혜랑의 모습 때문에 자신의 아름다운 과거의 추억이 변한 것으로 여기는데, “혜랑여사를 아니 만났더라면 아름다운 옛굼이나마 깨지지 않는걸”이라며, 혜랑의 등장이 자신에게 이로운 부분이 아니라고 인식했다. 전쟁으로 인한 인간의 내면적 변화는 사랑도 피상적인 감정 형태로 만들고 있다. 염상섭의 전시소설에서 나타나는 등장인물들의 이기주의는 전쟁 직후 변화된 내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는 전쟁의 근본적 비극은 이념의 문제보다는 전쟁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 자체에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4. 결론

그동안 염상섭의 전시문학은 그의 다른 문학적 시기보다 연구의 대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염상섭이 전시에 해군 장교로 복무하였고, 해군종군작가단 창설에 도움을 주었다는 점 때문에 그의 전시소설이 종군문학과 다르지 않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즉, 종군문학이 남한의 이념을 드러내고 반공 의식을 사람들에게 고취하기 위해 발표되었다는 논의가 그대로 염상섭의 전시소설에도 적용된 것이다. 하지만 본 논문은 염상섭의 전시소설은 종군문학과 달리 이념의 문제만을 전면화하지 않기 위한 서술적 전략이 나타난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이념의 희석을 위한 서술적 전략은 해방기부터 염상섭이 민족문학론을 통해 구현하고자 했던 중도적 성격에서 기원한다고 보았다. 이는 해방기 우익문학가들이 이념의 문제성을 드러내고자 했던 민족문학과는 다른 방향을 취한 것이었다. 이를 통해 염상섭이 해방기에 추구했던 중도적 입장을 전시에도 그대로 유지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근거는 전시에 제시했던 민족문학론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전시에 그가 발표한 비평문에는 전시의 민족문학론이 해방기에 그가 언급했던 민족문학론처럼 문학은 이념을 강

조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삶을 사실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추구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본고는 염상섭의 전시소설에 이념 희석을 위한 서술적 전략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먼저 염상섭의 전시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념적 갈등에는 전쟁 전부터 존재하였던 개인의 욕망과 관련 있었다. 전쟁은 인간의 본질적 감정을 드러내게 하는 시기였고, 전쟁 전부터 잠재되어 있던 인간 사이의 갈등과 내면의 결핍 양상이 이념의 문제를 통해 표출되었다. 그래서 염상섭 전시소설에서 좌익사상을 주장하는 인물 대부분 전쟁 전부터 물질적, 정신적으로 결핍을 지닌 사람들로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전쟁고아와 같은 소년을 통해 전쟁으로 인한 이념적 갈등보다는 전쟁 전부터 알고 지내던 이웃이 전시에는 더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드러냈다.

염상섭의 전시소설에서 이념 희석을 위한 서술적 전략은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념보다는 생존을 위한 선택을 한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었다. 등장인물들은 전세에 따라 이념을 바꾸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내부냉전이 근본적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생존을 위한 인간의 의식은 피난민들의 삶을 통해서 선명하게 드러났다. 피난민들은 피난 생활 속에서도 제사를 지내며 음식에 대해 욕망을 보이기도 하며, 물질적 의탁을 위한 거래와 같은 사랑의 추구하였고, 피상적인 사랑을 하며 살아간다.

이처럼 염상섭의 전시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에게 나타나는 이념의 문제는 전쟁 전부터 존재했던 내면적 욕망의 발현, 전쟁 직후 이루어진 생존에 대한 욕망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존재한다. 이는 염상섭이 해방기부터 민족문학을 통해 드러내고자 했던 문학적 자의식이 비롯된 것이었다. 즉, 염상섭의 전시소설은 전쟁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구현하면서 시대적 아픔을 드러내고 있다.

| 참고문헌 |

1.기본자료

염상섭, 「해방의 아침」, 『신천지』, 1952.
_____, 「탐내는 하꼬방」, 『염상섭 단편전집 중기단편: 1945-1953』, 민음사, 1987, (1952년 발표작)
_____, 「자전차」, 『협동』, 1952.
_____, 「慾」, 『염상섭 단편전집 중기단편: 1945-1953』, 민음사, 1987. (1952년 발표작)
_____, 「해지는 보금자리 풍경」, 『염상섭 단편전집 중기단편: 1945-1953』, 민음사, 1987. (1953년 7월 발표작)
_____, 「거품」, 『신천지』, 1952.
_____, 「少年水兵」, 『軍港』, 1952.

2. 평론

김기완, 「전쟁과 문학」, 『문예』, 1950.12.
김동리, 「순수문학의 진의」, 『서울신문』, 1945.
_____, 「조선문학의 지표」, 『청년신문』, 1946.
신영덕, 「전쟁기 염상섭 해군체험」, 『韓國學報』, 일지사, 1992.
염상섭, 「민족문학이란 용어에 관련하여」, 『호남문화』, 1948.
_____, 「한국의 현대문학」, 『문예』, 1952.2.
장덕조, 「내가 본 공산주의」, 『적화삼삭구인집』, 국제보도연맹, 1951.
조연현, 「문학자의 태도」, 『문화창조』, 1945.
_____, 「새로운 문학의 방향」, 『예술부락』, 1946.
_____, 「한국전쟁과 한국문학-체험의 기록과 경험의 형상화」, 『전선문학』, 1953.5.
_____, 「해바라기의 생명- 1. 피난민의 길」, 『피난민은 서글프다』, 1951.

3. 단행본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2』, 민음사, 2002.
김동춘, 『전쟁과 사회』, 돌베개, 2000.
김영민, 『한국현대문학비평사』, 소명출판사, 2002.
김윤식, 「한국문학40년사」, 『한국 현대문학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8.
이재선, 『현대한국소설사』, 민음사, 1991.

중앙일보사편, 「전시하의 문인들」, 『민족의 증언』 7, 중앙일보사, 1983.
Bernd Stoever, 최승환 옮김, 『냉전이란 무엇인가 : 극단의 시대 1945-1991』, 역사와 비평사, 2008.
Eric Fromm, 『사랑의 기술』, 문예출판사, 2019.
Sigmund Freud, 『정신분석학의 근본개념』, 열린책들, 2004.
S ø ren Aabye Kierkegaard, 『사랑의 역사』, 임춘갑 역, 종로서적, 1982.
_____, 『유혹자의 일기』, 임춘갑 역, 종로서적, 1980.
_____, 『죽음에 이르는 병』, 김일용 옮김, 계명대학교 출판부, 2006.

4. 논문

공종구, 「염상섭 소설의 전쟁 미망인」, 『현대소설연구』 78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20.
김준현, 「1950년대 문예지와 염상섭의 단편소설」, 『반교어문연구』. 반교어문학회, 2015.
박찬승, 「종족마을 간의 신분갈등과 한국전쟁 : 부여군 두 마을의 사례」, 『사회와 역사』, 한국사회사학회, 2006.
서용선 외, 『한국전쟁연구- 정령정책, 노무운용 동원』, 국방군사연구소, 1995.
신은경, 「1950년대 전시소설 연구- 전시의 민족정체성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21.
오태영, 「한국전쟁기 남한사회의 공간 재편과 욕망의 동력화-염상섭의 장편소설을 중심으로」, 『사이』 29권 10호,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20.

<Abstract>

A Study on ‘National Literature’ Shown in Yeom Sang-Seop’s Wartime Novels in the 1950s

Shin, Eun-Kyung

Yeom Sang-Seop’s literature was created in the turbulent period of various times. Even in the flow of weighty times such as Japanese colonial era, liberation period, and Korean War, Yeom Sang-Seop established the literary world view through continuous literary activities. Yeom Sang-Seop’s wartime novels need to be examined separately from his literature in the 1950s because they show the distinctive point from war literature published at that time.

Yeom Sang-Seop’s wartime novels published during the Korean War are based on the ‘national literature theory’ argued by him in the wartime. Arguing the ‘national literature theory’ in the wartime, he talked about ‘realism’ as a concrete methodology. This is not emphasizing the ideology of South Korea that the war literature aimed to pursue through realism, but implying his will to realistically reflect people’s lives in the reality of war. Thus, Yeom Sang-Seop’s wartime novels show the narrative strategy to reflect people’s lives in the negative reality of war by diluting the ideology issue. Even though the characters facing the ideological issue appear in his wartime novels, the cause for their fundamental problems is originated from human’s desire and conflict existing from before the war, or selfish internal desire to survive right after the war. Through the narrative strategy like this, Yeom Sang-Seop’s

wartime novels show the essential differences from war literature, and also show the pains of the time.

Key words: Yeom Sang-seop, wartime novels, national literature, realism, kalter Burgerkrieg

투 고 일 : 2021년 2월 13일 심 사 일 : 2021년 2월 19일–3월 2일
게재확정일 : 2021년 3월 11일 수정마감일 : 2021년 3월 21일